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2강 여시(如是)란 무엇인가

아부의 글은 명문이지만, 그만큼 읽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맨 첫 구절 여시아문의 여시(如是)를 읊은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에 먼지바람 불지 않을때, 그때 한 점 흠 없이 전지를 비출 것이니, 보라, 보라.

원문
1. [如是]. 古人道, 喚作如是, 早是變了也. 且道, 變向甚麼處去. 此, 不得亂走. 畢竟作麼生. 道火不曾燒卻口.
2. [如] 如, 靜夜長天一月孤.
3. [是] 是, 水不離波, 波是水. 鏡水塵風不到時, 應現無瑕照天地. 看看.

번역
보이는 대로 대강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1. <如是>. 옛 사람이 말했다. 여여(如如)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일은 변질되었다. 말해 보라. 대체 어디가 변질된 곳인가. 액! 어지러이 쫓아 다니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불이야!”라고 말한다고 어디 입을 태워먹던가.
2. <如>여, 여(如)여.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다.
3. <是>여, 시(是)여. 바다는 파도를 떠나 있지 않으니, 파도가 곧 바다이다. 거울같은

해석과 부연
1. 미리 하나 짚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의 맨 첫 줄이자 현대불교 신문사의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 여시아문(如是我聞)을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또 꺼내느냐고 핀잔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능도 여시(如是)를 “이와 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선가는 여시(如是)가 앞으로 이어질 붓다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 바로 그 당체(當體)의 성격과 내용을 일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붓다의 말씀이 곧 진리 아니냐”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부는 여시(如是)를 이어질 <금강경>의 내용이 아니라 세계의 실상인 여여(如如), 나아가서 <대승기신론>의 진여(眞如)와 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합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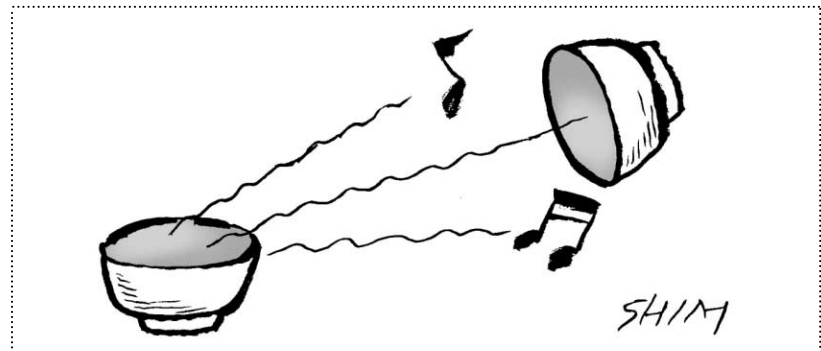
고 있습니다. “여시(如是)에 대한 옛사람들의 해석은 다다양하다. 지금 아부노인은 여(如)를 유무(有無)가 불이(不二)라는 뜻으로 새기고, 또 시(是)는 그 여(如)에 시비(是非)가 없다는 뜻으로 읽었다.” 그렇습니다. 아부에게 여시(如是)는 이어지는 <금강경>의 말씀이 아니라 유무와 시비가 무색한 법계(法界)의 실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해가 보통과는 달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음을 내 듣자오나”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으면서 왜 저토록 말이 많아!”라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불교의 언어혐오증(lingua-phobia)을 나름대로 변명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1부에서 제가 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아부(我相)는 자기 욕망으로 객관적 세계의 자장을 뒤흔다는 것을...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예고(ego)가 뒤떨어 놓은 세상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 한다는

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도 객관적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2편 ‘제물론(齊物論)’의 일절을 들어봅시다. “무릇 말이란 바람에 울리는 소리와는 다르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있다. 의도에서 발한 말은 편견의 소산이므로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말은 있는 것일까. 그 말은 불가능한 환상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은 새의 짹짹거림과 어디가 다른가. 둘 사이에 정녕 구분이 있

보내는 집달리 혹은 해결사같은 것입니다. 채우는 보지 않고, 해결사들은 목표물의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수십 억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이 말은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적어놓은 채권은 없으며, 세상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붓다도 오직 자신이 서 있을 땅 뒤편의 자리만 믿기로 누릴 수 있겠다 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자아화하는 도구입니다. 즉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와 욕망에 맞도록 요구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노장과 불교는 왜 언어를 미워할까



것을... 그때 세계는 화평해 지고, 수행자는 가장 무서운 괴물인 자기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는다는 것을...

는가, 혹은 없는가. 김(瞋)은 어디에 가려져 참과 거짓이 있게 되었고 말(言)은 어디에 가려져 옳고 그름이 있게 되었다. 어디에 간들 길이 아닌 곳이 있으며 어디에 있을들 말이 못설 자리가 있으리요, 길은 우리의 협소한 이해로 하여 가려졌고, 말은 우리의 부화(浮華)한 요설로 하여 가려졌다.” 말이란 저번 강의를 패러디하자면, 채권을 적어놓는 장부이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장자 제물론의 한 구절 언어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총실한 도구이고 노예입니다. 이 점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莊子)는 인간의 언어는 바람소리와는 달리 무엇인가를 의도

주장사파라...

운문문언 선사의 '우상파괴'



조태호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 당말(唐末)스님. 절강성 가흥 출신으로 17세때 출가. 설봉의존(雪峰義存)의 법을 이음. <운문광진선사어록>이 전함.

네티즌 교리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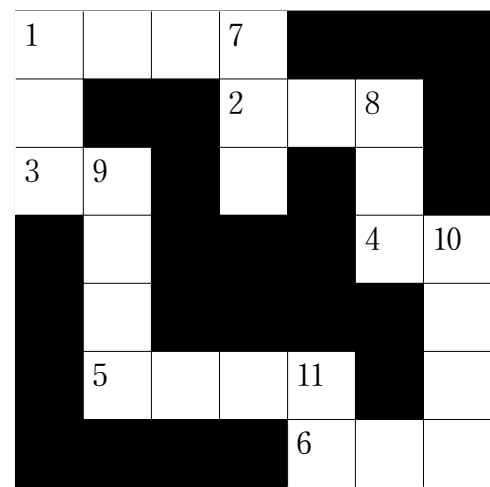
아수라장이란?

시골벽적하거나 전란(戰亂)이나 투쟁으로 끔찍이 흐트러진 현상을 “아수라장 같다” 또는 줄여서 “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란 말이 불교용어라고 들었는데, 그 본래 뜻은 무엇인가요? (아반법석)

답1: 맞습니다. 아수라장이란 아수라(阿修羅)의 심술이 만든 피해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전란이나 투쟁으로 끔찍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수라란 천(天), 인(人), 아수라,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도전적이어서 전신(戰神)이라고도 합니다. 아수라는 전쟁에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몹시 우매하고 욕심이 많은 바라문이 었다고 하지요. 어느 날 이 바라문은 광야에서 많은 수레에 물을 싣고 다니며 남에게 보시하던 중 불타고 있는 탑을 보았다고 합니다. 못된 무리들이 불탑(佛塔)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바라문은 물수레를 모두 동원하여 그 불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욕심(慾心)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답2: 아수라의 거처는 수미산(須彌山) 아래 큰 바다 밑이라고 합니다. 아수라들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8만 4천 유순(由旬), 입 크기만 1천 유순이라 합니다. 인도인들은 정의의 상징인 하늘(天)과 악의 대표인 아수라의 싸움에서 수라가 이기면 재해가 많고 하늘이 이기면 풍요가 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와 하늘의 싸움에서 하늘이 이기면 인간세상은 평화롭고 아수라가 이기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이 싸우는 동안 인간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아수라의 힘이 강해지고 하늘의 힘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상에 정법(正法)이 널리 퍼지면 하늘이 강해지고 아수라는 약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하늘과 아수라 중 누가 힘이 더 셀까요? 곰곰이 볼 대목입니다. (정법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 개꼬리풀이라고도 함 2. 낙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위에 세우는 금속 막대기 3. 불교 경전의 내용을 필사하는 일 4.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5. 매우 놀라운 일이나 새로운 것을 두고 이르는 말 6. 계절에 관계없이 잎이 푸른 나무

정답은 26면에

1. 전복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강천산에 있는 사찰로 도선국사가 창건함 7. 나뭇잎이나 풀잎 등을 입술로 붙여서 피리처럼 소리를 냄 8. 액체 속에 섞인 작은 고체가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으로 앙금이라고도 함 9.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최초의 법전 10.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11. 조성(用興)하여 위문하는 일